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표지입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_55p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유일한 실체인 자연은 무한한 속성을 지니며, 인간은 그중 사유와 연장의 두 가지 속성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실체가 속성을 통해 파악된 모습인 양태는 사유를 통해 관념으로, 연장을 통해서만 물체로 나타난다. 스피노자는 관념과 물체의 동일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유의 양태는 사유를 통해서만, 연장의 양태는 연장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심신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부정하는 평행론을 주장한다.

동일론은 두 대상 간의 일치에 근거하여 그들 사이의 속성 공유나 인과적 전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정신적 사건들 사이의 인과와 물리적 사건들 사이의 인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신적 사건 A가 정신적 사건 B를 일으키고, 물리적 사건 A'가 물리적 사건 B'를 일으킬 때, A와 A', B와 B'가 각각 동일한 하나의 양태라면, 그가 주장한 동일론과 평행론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A가 B의 원인이고 A가 A'와 동일하다면, 논리적으로 A' 역시 B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체와 관념이 동일하더라도, 물체와 관념이 인과적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과적 투명성이란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뀌더라도 그 인과 관계의 참 거짓 여부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만약 인과 관계가 투명하다면,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A와 동일한 A'를 대입한 “A'가 B의 원인이다.” 역시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반면 인과적 불투명성이란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는가에 따라 인과 관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성질이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특정한 속성이나 설명 체계 아래에서 기술될 때만 인과적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스피노자가 인과 관계를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가정하면, 동일론과 평행론의 양립 불가능성은 해소될 수 있다. 인과적 설명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속성 아래에서 개념화된 사건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식’이 ‘영희의 오빠’와 동일 인물일 때, “철수는 영식이 곱슬머리라고 믿는다.”라는 문장은 불투명한 맥락을 형성한다. 철수가 영식과 영희의 오빠가 동일인임을 모른다면, “철수는 영희의 오빠가 곱슬머리라고 믿는다.”는 거짓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사건 A가 정신적 사건 B의 원인이라는 지식은 오직 사유 안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A가 물리적 사건 A'와 동일하다 할지라도, A'는 B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관념과 물체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인간이 서로 다른 속성을 통해 파악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론은 파악되기 이전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며, 평행론은 인간이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른 결과를 설명한다. 지성이 실체를 지각할 때 속성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피노자의 심신론은 일원론적 실재론과 다원론적 설명 양식을 정교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사유와 연장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인과적 전이는 불가능하다.
- ③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 A와 정신적 사건 B는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④ 스피노자에 따르면 관념과 물체는 동일한 대상일 수 있다.
- 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은 상호작용할 수 없다.

2.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건은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인간은 사유를 통해 물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인과가 투명하다면 참 거짓의 관계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동일한 양태이더라도 인간이 파악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물리적 사건들은 정신적 사건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완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다음 중 인과 관계를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 적절한 진술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영식’과 ‘영희의 오빠’가 동일인임을 철수가 알고 있을 때, “철수는 영식이 범인이라고 믿는다.”가 참이면 “철수는 영희의 오빠가 범인이라고 믿는다.”도 참이다.
- ㄴ. 학생 A가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모를 때, “학생 A는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다.”와 “학생 A는 전자기파가 직진한다고 배웠다.”는 모두 거짓이다.
- ㄷ. 동일한 실체인 P와 Q가 동일한 설명 체계 아래서 설명될 때, “A는 P가 참임을 증명했다”는 진술로부터 “A는 Q가 참임을 증명했다”는 진술을 도출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자 A: 정신과 신체는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실체이다. 정신의 본질은 생각하는 것이고 신체의 본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 둘은 인간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 밀접하게 결합하여 인과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정신의 변화가 신체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체의 자극이 정신의 지각을 형성할 수 있다.

학자 B: 세계의 유일한 실체는 물질이며, 모든 정신적 상태는 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 따라서 정신적 사건 A가 정신적 사건 B를 일으켰다는 진술은 사실상 물리적 사건 A'가 물리적 사건 B'를 일으켰다는 물리 법칙으로 완전히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인과 관계는 물리적 속성들 사이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된다.

- ① 스피노자는 학자 A와 달리,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닌 하나의 실체가 서로 다른 속성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② 인과적 불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는 학자 B의 관점과 배치되겠군.
- ③ 특정 정신적 사건이 신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현상에 대해, 스피노자와 학자 A는 모두 실체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겠군.
- ④ 학자 B는 인과 관계가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지만, 스피노자는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겠군.
- ⑤ 정신적 사건 A와 물리적 사건 A'가 동일하다면, 학자 B는 스피노자와 달리 A가 B의 원인이면 A'도 B의 원인이라는 점을 긍정하겠군.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_109p

리더십 연구의 고전적 흐름을 형성한 피들러와 허시, 블랜차드 등의 상황론적 이론가들은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가 리더의 고정된 스타일과 상황에 대한 리더의 통제력 사이의 적합성, 혹은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른 리더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리더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에 맞춰 지시, 코치, 지원, 위임 중 적절한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리더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론적 접근은 리더의 외부적 행동 변화에만 치중할 뿐, 정작 구성원의 내면에서 동기가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 허즈버그의 두 요인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라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구성됨을 밝혀냈다. 위생 요인은 정책, 급여, 작업 환경 등이 결핍될 경우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들로, 리더가 이를 개선하면 불만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이 곧바로 열정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반면 동기 요인은 성취감, 책임감, 개인적 성장 등 직무 그 자체에서 얻는 만족감이다. 리더는 위생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여 불만을 제거하는 동시에, 동기 요인을 자극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을 끌어내야 한다. 즉, 단순한 처우 개선보다 직무의 의미를 부여하는 리더십이 성과 창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동기 부여를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 과정으로 파악한 브룸의 기대 이론은 리더가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인지적 변수들을 구체화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첫째는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이며, 둘째는 그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수단성이고, 셋째는 제공되는 보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나타내는 유의성이다. 만약 리더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하거나, 성과를 내도 보상이 불분명하며, 구성원이 원치 않는 보상을 제공한다면 동기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는 각 구성원이 중시하는 보상의 가치를 파악하고, 노력과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절대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심리적 균형임을 역설한다. 구성원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그 결과로 얻은 보상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만약 자신이 타인보다 덜 대우받는다 고 느끼는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구성원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보상의 인상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이직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려 한다. 이는 리더가 아무리 뛰어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조직 내 형평성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스타일 선택을 넘어, 구성원의 욕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지적 계산 과정과 공정성 지각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심리적 설계가 필요하다. 리더는 불만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명확한 보상 기대를 제공하며, 공정한 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비로소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들러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클수록 리더는 위임의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② 상황론적 이론가들에 따르면,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 역량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고려하여 행동 양식을 택해야 한다.
- ③ 허즈버그는 위생 요인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 ④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리더가 보상을 약속할 때, 구성원이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도 동기는 나타날 수 있다.
- ⑤ 아담스는 구성원이 불공정성을 지각할 때, 스스로 노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구성원의 불만을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인 열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반면, ㉡은 타인과의 비교를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② ㉠은 직무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을 강조하는 반면, ㉡은 보상의 절대적 가치가 개인의 투입량 결정에 핵심적이라고 본다.
- ③ ㉠의 위생 요인이 개선되더라도 ㉡에서 말하는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동기 부여 시스템은 위협받을 수 있다.
- ④ ㉠은 리더가 처우 개선에만 집중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은 리더가 구성원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과 ㉡은 모두 리더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에서 위임으로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사의 최 사장은 최근 신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 (가) 사무실 인테리어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휴게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직원들의 환경적 불만을 해소했다.
- (나)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약속했으나, 정작 성과 측정 기준이 모호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 (다) 작년에 입사한 경력직 직원들에게만 높은 연봉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 숙련직 직원들이 업무량을 줄이며 반발하고 있다.
- (라) 최 사장은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은 핵심 인재들에게도 세부적인 업무 진행 방식을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다.

- ① (가)를 통한 환경 개선은 허즈버그가 제시한 동기 요인을 자극하는 행위이므로, (라)와 같이 통제력을 발휘할 때 구성원의 성취감이 극대화될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보상의 유의성이 확보된다면, (가)를 통한 환경 개선 조치와 합쳐져, 아담스의 관점에서 보상의 절대적 가치가 심리적 불공정성을 상쇄하는 기제로 작용하겠군.
- ③ (다)에서 업무량을 줄이는 것은 (나)의 불투명한 성과 기준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브룸이 제시한 노력과 성과 사이의 기대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지시 및 감독은 (가)의 환경 조치와 함께, 브룸이 강조한 수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나)에서 기인한 구성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면적 동기 형성의 답을 제공하는 사례이겠군.
- ⑤ 브룸의 관점에서 (나)의 보상이 매력적이어도, (다)에서 보상의 정당성이 무너져 아담스의 공정성 지각이 훼손된다면 (가)를 통한 불만 제거만으로는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부족하겠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 월출봉 취암사에 한 도사 있으며, 높은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할래라.

학대사를 불러 하는 말이,

“옹당촌에 옹좌수(甕座首)라 하는 놈이 불도를 능멸하고, 중을 보면 원수같이 한다 하니, 그놈의 집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

학대사, 거동 보소. 헌 굴갓 마의장삼 백팔염주 목에 걸고, 육환장을 손에 들고 허위허위 내려오니, 계화는 작작하고, 산조는 슬피 울어 갈 길을 재촉한다.

꽃비 내리는 해 질 녘에 ㉡ 옹가집 다다르니, 어간대청 너른 집에 네 귀에 풍경 달고 안팎 중문 솟을대문 좌우로 열렸는데, 목탁을 딱딱 치며 권선불을 펼쳐 놓고, 염불을 외우며 절을 올릴 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주상 전하 만만세. 왕비 전하 수만세. 시주 많이 하옵소서. 극락세계로 가오리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A] 이때에 중 할미 중문(中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이,

“노장(老長) 노장 저 노장아. 소문도 못 들었나 우리 덕 좌수님이 초당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기침도 아니 하였으니, 만일 잠을 깨거드면 동냥은 고사하고 귀 뚫리고 갈 것이니 어서 바빠 돌아가소.”

저 노장 대답하되,

“고루거각(高樓巨閣) 높은 집에 중의 대접 그리할까. 악을 쌓은 집안에는 재앙이 남고 선을 쌓은 집안에는 경사가 남는 법이오. 소송이 영암 월출봉 취암사에 사옵더니 법당이 퇴락하여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귀택에 왔사오니, 황금 일천 냥만 시주를 하옵소서.”

합장(合掌) 배례하며 목탁을 두드리니, 옹좌수 거동 보소. 밀창 문을 열치면서,

“어찌 그리 요란하나?”

중놈이 여쭙오되,

“문밖에 중이 와서 동냥 달라 하나이다.”

좌주, 골을 발짝 내어 성낸 눈깔 내두르며 악한 소리 지르면서, “괘씸한 이 중놈아. 시주하면 어쩐다냐?”

저 노장 대답할 제, 육환장을 눈 위에 높이 들어 합장 배례하는 말이,

“황금 일천 냥만 시주하옵시면, 소송의 절에 가서 수록재를 올릴 적에, 아무 면(面) 아무 촌 아무라 축원을 올리오면 소원대로 되나이다.”

옹좌수 하는 말이,

“가소롭다, 네 말이여. 천생만민(天生萬民) 마련할 제 부귀빈천 유무자손 복이 있고 없음을 이미 다 나누어 정해주셨거늘, 네 말대로 하려기면 가난할 이 뉘 있으며, 자식 없는 이 뉘 있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은 바로 중. 너의 마음 고이하여 부모 은혜 배반하고 삭발위승(削髮爲僧) 부처의 제자 되어 아미타불 거짓 공부, 어른 보면 동냥 달

라며 아이 보면 가자 하고, 불충 불효 너의 행실 내 이미 알았으니 동냥 주어 무엇하리.”

(중략)

이렇듯 슬피 울 제 한 곳을 바라보니 ㉢ 층암절벽상에 백발도사 높이 앉아 청려장을 옆에 끼고 반송 가지를 휘어잡고 노래로 하는 말이,

“후회막급이로다. 하늘이 주신 죄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실용가 듣기를 다하매 천방지방(天方地方)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 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명명(明明)하신 도덕하(道德下)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萬端)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놈아. 인제도 팔십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옹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가궁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고로 방송하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 부작을 써 주며 왈,

“이 부작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며 간 곳을 알 수 없거늘, 실용가 질겨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高樓巨閣) 높은 집에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담장 안의 흥련화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연산홍아 잘 있느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고 이제야 참된 길을 알게 되어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소롭다. 허용가야. 인제도 네가 옹가라 장담할 거냐.”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 이 거동을 보고 대경실색하는 말이,

“애고, 애고, 좌수님. 저놈 또 와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도 받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러할 즈음에 방에 있던 옹가 간데 없고, 없던 짚 한 뭉치 놓여 있고, 허용가의 자식들도 문득 ㉤ 허수아비 되니, 집안의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며 배꼽이 빠지게 크게 웃더라.

좌수, 부인더러 하는 말이,

“마누라. 그 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이 무수히 낳았으니, 그 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 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얼척없어 묵묵부답하고 방안에 돌아다니며 허용가의 자식 살펴보니, 이 보아도 허수아비 저 보아도 허수아비 아무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一邊)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하더라. 도승의 술법을 탄복하여 모친게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짐을 칭찬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대사는 옹고집의 행실을 살피기 위해 남루한 외양을 갖추고 그의 거처를 방문하여 시주를 권유하고 있다.
- ② 옹고집은 학대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부귀빈천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대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학대사는 층암절벽에서 옹고집 앞에 나타나 그의 지난 허물을 꾸짖으며, 가짜를 물리칠 신통력이 담긴 부작을 건네주고 있다.
- ④ 중 할미는 옹고집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음을 들어 학대사에게 바빠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 ⑤ 실용가는 가짜 옹고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확인한 뒤, 부인에게 그간 가짜와 함께했던 행적을 물으며 지난 시간을 추궁하고 있다.

9.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열과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장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특정 인물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이 자신의 발화 속에 격언이나 성어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함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물이 처한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인식이 반영된 공간으로,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려는 인물의 심리적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 ② ㉡은 인물의 세속적 성취를 상징하며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인물이 오히려 타인에 의해 배척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고난에 처한 인물이 종교적 귀의를 결심함으로써,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전환적 공간이다.
- ④ ㉣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변화한 인물을 면책하려는 도사의 의도가 투영된 대상이다.
- ⑤ ㉣은 인물의 개과천선 이후에도 집안 내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타락한 인물을 꾸짖고 응징하며 사회적 윤리를 회복시키는 ‘교화(教化)’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옹고집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공간에서 내쫓기고 가짜에게 지위를 찬탈당하는 시련은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은 파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주인공이 스스로의 오만함을 깨닫고 도술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경외심을 회복하는 개과천선의 단계로 이끄는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① 옹좌수가 ‘부귀빈천’은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며 학대사를 비난한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수호하려는 뒤틀린 자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실용가가 층암절벽에서 도사를 만나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늙은 모친’을 언급하는 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 단절되었던 가족 윤리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도사가 실용가에게 ‘부작’을 내어준 것은, 징벌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불교적 자비와 교화의 완성을 상징하는 장치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짜 옹고집의 자식들이 ‘허수아비’로 변하는 것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구축된 허위의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인물이 개과천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실용가가 돌아온 후 부인이 ‘대경실색’하는 것은, 개과천선에 성공한 주인공이 겪어야 할 마지막 시련으로,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의도적 장치라 볼 수 있겠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나)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1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표현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과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부재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존재의 행태를 회상하는 표현이다.
- ② ㉡은 ‘펜과 뼈와 광기’의 형상으로 화자가 취한 대상의 유구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은 ‘혁명’이 시도되었던 흔적으로 ‘입속’에 부재함으로써 ‘나’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은 ‘백일홍’이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대상과 ‘나무’의 유사성을 형성하여 대상이 지닌 생명력의 갑작스러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화자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성찰한다. (가)에서 '방'은 화자의 내면 공간을 상징하는데, 이를 통해 지향하던 것이 좌절된 현실 속에서 느끼는 회의와 상실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오히려 화자는 상실감과 실망을 오히려 미래를 위한 토대로 삼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자연물의 모습을 관찰한 화자가 이와 관련지어 자신을 성찰하고 사유를 얻고 있다.

- ① (가)에서 '방'이 바뀐 것은, 혁명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에 발생한 자의적 변화를 드러내는군.
- ② (나)에서 '나무'가 무사하여 '쏟아지는 우박'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고난을 버텨내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자연물의 강인함을 드러내는군.
- ③ (가)에서 그 방에 '모든 노래'를 남기고 온 화자의 '가슴'이 베마른 것은, 현실에 회의하여 의지를 잃어버린 화자가 느끼는 심적 상태를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미래의 토대가 될 가능성을 지닌 실망의 정체성을, (나)에서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절망의 극복이 어렵다는 사유를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 화자가 기쁨과 '풍성'함을 느끼는 것은 성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발견했음을, (나)에서 꽃들이 '마당을 피로 덮은 것은 절망의 극복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드러내는군.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세히 들어보라 손뽀아 이르리라
 이윤(伊尹)은 술을 지고 부열(傅說)은 달구지 들고
 영척(甯戚)과 백리해(百里奚)는 소 치다가 늪었으니
 가난하고 천하기가 이 사람만 하라마는
 고종(高宗)은 꿈에서 성인을 본 후 부열을 발탁하며
 뒷수레에 탄 큰 꿈이 벌판에서 매처럼 일어나는데
 백석가* 그치고 오고피*에 팔려가니
 인생의 궁달에 귀천(貴賤)이 아랑곳하겠느냐
 어와 저 아이야 이 말을 들었느냐
 풍운을 품었느냐 동량촌을 가졌느냐
 때와 운명이 잘못 되었더냐 부귀를 꺼리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세사(世事)를 모른 채
 입신양명을 외물(外物)로 던져두고
 연교 초야에 소 치기만 하는구나

(중략)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A]

영락(榮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
 천생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大道)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
 송아지 이미 좃아 녹음에 절로 놓여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곤 콩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 같은 여름별에 큰 쟁기 마주 매니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작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B]

-임유후, 「목동가」-

- * 백석가: 고결한 선비의 노래.
- * 오고피: 숫양 가죽 다섯 개.
- *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나)

내 양이 하 험하여 비위 상하여 꺼리니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⑥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제2수>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흥 중에 사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때는 경(京)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정훈, 「월곡답가」-

1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충고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④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중을 묻고 있고, (나)는 대상을 예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16.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소 치다가 늙’은 인물을 언급하여 타인과 비교되는 대상의 궁핍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늙음’에 놓인 ‘송아지’의 모습을 묘사하여 여유롭게 노니는 대상의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이윤’과 ‘부열’의 행동을 표현하여 인물의 고된 생활을, [B]에서는 ‘코뚜레’와 ‘고삐’를 언급하여 대상이 받는 현실적 제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서는 ‘큰 꿈’이 ‘매’와 같다고 비유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B]에서는 ‘푸성귀’를 뜯어 먹거나 ‘삶은 콩을 배’가 차도록 먹는다고 언급하여 한가롭게 지내는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부열’의 사례와 ‘백석가 그치’는 것을 비교하여 인생이 신분애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B]에서는 ‘저희’의 고단함을 가늠하여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고 있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와 달리 대상의 내적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 ② ㉡에서는 ㉠와 달리 대상이 지닌 물질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③ ㉠에서는 대상의 외양과 용도가 비교되고, ㉡에서는 화자에 대한 다른 대상의 태도가 비교되고 있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대상의 행동을 언급함으로써 화자가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대상의 내력을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올바른 삶은 고전시가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인데, 이때 올바른 삶에 대한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는 비유를 통한 사대부인 화자와 목동의 대화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사대부 화자와 목동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가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월곡’이라는 호를 사용하는 인물로, 화자는 이러한 대상을 연모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그 대상의 가치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아이’에게 ‘연교 초야’에서 ‘소 치기’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상대의 생활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내 양’에 대한 ‘한 분’의 평가를 통해,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이 평범한 이들과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부귀’를 언급한 뒤 ‘대도’와 ‘소 치기’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출세가 운명에 좌우된다는 인식과 일상을 통해 삶의 방식을 깨우쳤다는 인식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초옥삼간’에 있는 ‘그’가 ‘사념’이 없다는 것을 통해, 자연 속에 머무르며 잡념 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인생관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어느 소’가 되려 하겠냐는 것을 통해 삶이 무상하니 분수만 지키려는 태도를, (나)에서 ‘경’을 보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만을 사랑해주는 인물이 잊히지 않음을 알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